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8.(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 기부·자원봉사 부문 헌액자 18명...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공로 조명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지난 7일(화) 공단 본부에서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고,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원봉사 부문 헌액자 18명에게 헌액증서를 수여했다.
- 이번 행사는 공단 발전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의 공로를 기리고, 헌액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영승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코레시아너스클럽(KHC) 이계환 회장,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자 등 50명이 참석했다.
- 행사는 참석자 소개, 운영 지원금 전달, 헌액증서 수여, 이사장 기념사, 헌액 대표 축사, 기념촬영, 명예의 전당 헌액 명판 부착 순으로 진행됐다.
-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자는 총 18명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부문에서 선정됐다. 기부 부문에는 3억 원 기부자 1명, 1억 원 기부자 3명이 포함됐으며, 자원봉사 부문에는 40년·30년·20년 이상 장기 봉사자 등이 헌액됐다.
- 최영승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여러분의 발자취는 더 많은 이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소중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계환 회장은 축사에서 “오랜 시간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로 헌신하신 열여덟 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며 “오늘의 헌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여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과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약 8,0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명단(18명)

연번	부문	성명	소속
1	기부 3억	박상규	서울지부
2	기부 1억	이재연	인천지부
3		최대현	경기북부
4		안 성	제주지부
5	자원봉사 40년	최인자	부산지부
6	자원봉사 30년	최성돈	서울지부
7		오승준	광주전남
8		고향순	제주지부
9	자원봉사 20년 마일리지 2000점	이상억	서울지부
10		김시공	인천지부
11		김종립	인천지부
12		서성국	경기남부
13		황명숙	부산지부
14		박옥희	부산지부
15		표래식	광주전남
16		홍창부	제주지부
17		이두석	제주지부
18		박건택	서울서부

담당 부서	미래전략부	책임자	최정화 (054-421-0521)
		담당자	권오진 (054-421-0523)



사진1: 단체 기념촬영



사진2: 현액 명판 부착식(왼쪽부터 최영승 이사장, 박상규 위원(3억 이상 기부))



사진3: 헌액 명판 부착(왼쪽부터 최영승 이사장, 최인자 위원(40년 이상 봉사))